본문 : 출애굽기 2 장 15-22 절
제목 : 사막, 그리고 나와 너

1. The well is everything

지난 주 광야,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 주는 광야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명화극장>이나 <주말의 명화> 같은 프로그램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밤 9 시나 10 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에 잠들어 버려 영화를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같은 때는 낮시간인데도 영화를 방영했기 때문에 명절에는 항상 재밌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스타워즈, 수퍼맨, 닥터 지바고 같은 유명한 영화는 명절에만 볼 수 있었죠. "아라비아 로렌스 Lawrence of Arabia" 라는 영화도 명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 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영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랍의 국가들을 해방시켜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려고 했습니다. 로렌스라는 영국 장교가 아랍 국가들의 해방을 주도 했던 인물인데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아라비아 로렌스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 배경이 되는 곳이 사막이나 광야입니다. 어린 시절, 사막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사막을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 Sherif Ali 라는 Harith 부족의 지도자가 낙타를 타고 사막 저 끝에서 오는 롱테이크 씬이었습니다. 일 분에서 이 분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롱테이크로 까만 옷을 입고 낙타를 타고 오는 알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처음에 점이었던 그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편은 알리의 우물에 물을 마신 로렌스와 그의 안내자이자 알리의 부족과 적대적인 관계인 Beni Salem 족의 안내자가 있습니다. 타파스라는 로렌스의 안내자는 알리가 자기랑 싸우는 민족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보따리에서 총을 꺼내려 하지만 알리가 먼저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놀란 로렌스 장교는 알리에게 말합니다. "why?" 그러자 알리는 "This is my well" 이라 간단하게 답하죠. 로렌스는 "I have drunk it."이라고 말하면서 나도 쏴죽일 거냐는 눈으로 그를 노려 봅니다. 그러자 알리가 말하죠. "You are welcome" 수 십년이 지나고 영화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우물에서 벌어진 롱테이크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타파스가 알리의 부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신 것이 살해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알리가 로렌스에게 "He was nothing. The well is everything." 이라

말하는 것을 통해 사막 부족들에게 우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 불의한 일을 그냥 못 보는 모세

모세는 바로의 추격을 피하여 정신 없이 도망을 합니다. 그가 살 길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었고 그런 곳은 광야 뿐이었습니다. 그가 광야로 도망친 이유입니다. 그가 피신한 미디안 광야는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 남쪽, 사우디 아라비아의 북쪽에 있는 아카바 만 인근의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출발하여 시나이 반도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고 긴 도망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죠. 본문의 이야기는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가를 배경으로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광야에서 우물은 Everything 입니다. 그날도 모세는 혼자였고, 그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그를 추격해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기에 모세는 사람들을 경계하며 앉아 있어야 했지요. 멀리서 양떼를 몰고 오는 일곱명의 처녀들이 보였습니다. 우물은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처녀들이 물을 길어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는 그들의 일에 관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장한 남자 목자들이 나타나서 여자들을 쫓아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이고 뭐고 이번엔 가만 있을 수 없었죠. 정의로운 마음에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매우 정의로운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 일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루되었다가 괜히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해준 것이 기억납니다. 일례로, 한 남자가 쓰러진 노인을 부축해서 도와 주었는데 오히려 그 노인이 자기가 다친 것에 대해 도와준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었더니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게 하는 이야기들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괜히 남 도와주려 나서지 말고 지켜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이들의 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의한 일에 개입을 했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세가 불의한 일을 보지 못해서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일곱명의 여자들 앞에서 남자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도와준 것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그 일에 개입한 것일 줄도

모릅니다. 남자들이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여자들 앞에서 뭔가 멋져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유전학적인 남자의 본질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모세는 좀 멋졌습니다.

3. 친절이 몰고 온 snow ball

작은 친절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세는 거칠고 무례한 목자들에게서 여인들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여인들의 양에게 친절하게 물을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처녀들은 건장한 남자의 도움으로 평소보다 양에게 물을 주는 업무가 빨리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집에 빨리 돌아온 딸들을 아버지는 의아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아버지는 궁금해 물었습니다. "응 아빠. 글쎄 어떤 잘 생긴 이집트 남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뭐야. 게다가 우리 대신에 물까지 길어 올려주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기까지 한거야." "그래?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대?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온 거야?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런 친절한 남자를 내버려 두고 오면 안 되지. 당장 가서 그를 대려와서 음식을 대접해 주어라." 모세는 여자들 앞에서 의협심으로 베푼 친절이었지만, 그 친절이 계기가 되어 그는 광야에서 외톨이 신세를 면합니다. 그의 친절이 한 민족과 한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친절은 스노우 볼이 되어 나의 삶에 큰 결과로 돌아올 때도 있으니까요. 모세가 베푼 친절과 호의는 그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는 이집트 왕실에서 40 년을 살아왔지만 그곳에서 은근한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죽였다고 도망칠 이유는 없었을테니까요. 그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따뜻한 가정의 보살핌이었는 지 모릅니다. 우물 가에서 베푼 작은 친절과 호의로 인해 그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지요. 참고로 그의 장인 르우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이고 그의 아내 십보라의 뜻은 '암컷 새'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친구의 안내로 새로운 둥지를 광야에 마련하게 된 모세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친절과 의로운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은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4. 사막에서 만난 우물

Sanit-Exupéry(1900-1944)가 1943 년 발표한 <어린 왕자>는 어느 비행기 조종사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조종사는 어느 날 비행기 고장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고치다 잠든 어느 날 아침 그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그가 이곳 지구의 사막에 오기 전, 어린 왕자는 어느 날 갑자기 날아 온 씨앗을 키우게 되고 씨앗은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되었죠. 평소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어린 왕자는 이 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꽃은 어린 왕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불평도 너무 많았죠. 실망한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나 여행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일곱번째로 방문하게 된 별이 지구였고, 그가 떨어진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이었던 겁니다. 사막에서 어린 왕자는 우연히 뱀을 만나, 그에게 이곳은 무척 쓸쓸하다고 말하지요. 그러자 뱀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도 외롭긴 마찬가지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외로움의 원인이 '사람의 없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없음', 곧 '관계의 없음' 때문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찾아 나선 어린 왕자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 "내 친구가 되어줘. 난 무척 외로워....."라고 외치지만 "난 무척 외로워~외로워~외로워~" 메아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이 작품에서 말하는 사막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막이란 본래 너무 뜨겁고 척박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사막은 외롭고 쓸쓸한 곳이지요. 하지만 설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해도 서로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하긴 마찬가지라면 그곳 역시 사막이 아닐까요? 조종사와 어린 왕자는 우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우물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물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을에 있는 우물처럼 도르래와 두레박, 밧줄 등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종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그냥 모래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 우물은 마을에 있는 우물과 흡사했다. 이곳에 마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분명 꿈을 꾸고 있는 거라 생각했다." 조종사의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 속의 우물과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나게 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곳, 누구나 외로워하면서도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 않는 이곳, 수많은 사람과 만나면서도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바로 이곳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Hortense Vlou 의 시 <사막>을 읽어 보면 조종사가 말하는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 너무 외로워 /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 오스텅스 블루, <사막> 중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관계와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그곳이 사막이란 말이지요.

5. 여우가 알려준 관계 맺는 법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화는 어린 왕자와 여우와의 대화입니다. 어린 왕자는 수많은 장미꽃이 핀 정원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기가 놓고 온 장미꽃 한 송이가 저 수많은 장미 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매우 슬펐기 때문이죠. 이 때 정원에 여우를 만납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들이는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우는 길들인다는 것은 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수 많은 여우 가운데 오직 한 여우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대상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여우의 말을 한 번 들어 보십시오.

"만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의 인생이 환하게 밝아질 거야. 나는 모든 발자국 사이에서 너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하겠지. 만약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바로 굴속으로 숨을 거야. 그렇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음악인 양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내겠지.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래서 밀은 나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야. 밀밭을 보아도 나는 어떤 감흥이 생기지 않지. 그건 나에겐 정말 슬픈 일이란다. 그러나 너의 머리카락 빛이 금빛이니, 네가 나를 길들여 놓게 되면 얼마나 멋지겠니? 난 금빛으로 빛나는 곡식을 볼 때마다 너를 생각할 테니 말이야. 그리고 밀밭 사이로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테지....."

여우는 왕자가 자기의 별에 놓고 온 장미 한 송이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장미꽃과 다투고 토라지는 그 과정이 길들여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왕자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비밀을 가르쳐 줄게. 매우 간단한 비밀이야. 뭐든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 밖에 없다는 이야기란다. 중요한 것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네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네가 장미를 위해 정성 들여 쏟은 시간이야."

어떤 것이 소중해진다는 것은 오직 그것과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만 생겨난다는 것이 생떽쥐페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6.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모세는 사막에서 낙오자가 될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그는 무척 외로웠습니다. 마치 사하라 사막의 우물에서 만난 조종사와 어린 왕자와 같은 외로움이 그에게 사무쳐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통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나눔을 하고 있는 <다시 만나는 교회>의 1 장의 주제가 뭔가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입니다. 이 말은 유태인 랍비이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가 그의 책 <나와 너, Ich und Du>에서 한 말을 인용한 겁니다. Ich 는 독일어 1 인칭 I 입니다. Du 는 2 인칭 You 입니다.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세계를 부버는 3 인칭 '그것'의 세계라 부릅니다.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막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의 세계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이라는 3 인칭이 '너'라는 2 인칭으로 변화되어야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부버는 말합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한 '길들이기'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 없이 많은 장미들 중의 한 장미인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너'라는 장미로 다가옴을 깨달을 때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의 장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1 인칭인 '나'가 3 인칭인 '그'나 '그녀'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드디어 '그대'라는 2 인칭이 기적과 같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물들의 세계'가 '의미와 가치의 세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기적을 사막 한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으로 지을 만큼 외로움에 사무친 사람이었습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의 'Ger'와 '그곳, 거기'라는 뜻의 'Sham'이 합쳐진 말입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그곳, 그러니까 3 인칭의 '사물들의 세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도 처음엔 모세를 3 인칭으로 말했습니다. 19 절 말씀이죠.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어떤 이집트 사람' 이란 말을 보십시오. 아무 관계도 없는 3 인칭, 어떤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베푼 친절에 반응해 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hospitality 가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곳은 더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그곳은 더이상 '사물들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 모두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

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버텨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막에서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은 작은 친절과 호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과 싸워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사막보다 더 메마르고 척박한 곳입니다. 게다가 겨울은 그 외로움과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러 시련과 환난으로 고립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손 내밀어 주십시오. 아버지 르우엘이 딸들에게 나무라며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그와 관계를 맺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관계를 만들기 위해 티타임을 갖고 식사에 초대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멀디 먼 3 인칭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2 인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 장 8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했다. 내가 너와 관계를 맺기 원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아직 3 인칭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환대와 친절로 우리도 서로 길들여져 가면 좋겠습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바로 2 인칭 너를 통해 주어질테니까요.